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15강 로마서와 서론. 고린도전서에게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역사와 문학, 15강, 로마서 및 고린도전서
서문입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과 로마서의 주요 주제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관점. 옛 관점은 로마서가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새로운 관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점이 더 수평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는 둘 다 사실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방인 관계 문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근거로 서는가에 관한 더 넓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마틴 루터가 제기한 질문입니다. . 그러나 나는 로마서의 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고, 무엇보다 먼저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요점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주목하고 싶습니다. , 바울의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진단이라고 부르는 것, 즉 바울이 보여 주는 처음 세 장에서 시작되거나 기본적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자, 특히 유대인 독자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다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처음 세 장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 정죄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율법에 불순종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아라.

그러나 진단은 다시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예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셨고 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의 또는 정당화된 칭의라는 용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를 제공함으로써입니다 . 따라서 분수령의 종류는 실제로 3장 21절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21절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주제적으로는 바울이 문제를 진단하거나 모든 인류를 비난하는 것에서 지금으로 이동하는 편지의 구분선 중 하나입니다. 죄로 인한 곤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해 왔던 문제 중 하나를 분명히 하자면, 바울이 도덕률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수적이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나중에 하는 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과 관련이 없거나 무관한 것처럼 말입니다. .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예후 부분의 논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또는 올바른 신분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중간인 6장에서 바울은 사실 바로 그 생각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활동이나 그에 따른 순종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아니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율법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당신의 번역 중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나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이 의가 새 생명을 낳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즉 죄에 대한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질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모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전반에 걸쳐 선한 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한 일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표시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재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와 올바른 신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필연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해결책이나 예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부분의 핵심 부분 중 하나 또는 3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3장과 21절부터 26절에 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분류한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3장에서 2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이 예후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 아래 정죄 받은 자라는 것을 방금 보여 주고 이제 21절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율법 외에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로 세우셨느니라. 25절에서는 번역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을 믿음을 통해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속죄 제사 또는 그의 피에 의한 화해 제사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한 관용으로 이전에 지은 죄, 아마도 구약의 구약에서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자기가 의로우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증명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몇 가지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로마서 대부분은 내가 방금 읽은 구절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의미와 의미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율법 외에 의를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아마도 다시 이해되어야 할 일이거나, 옛 관점과 새 관점 모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이 의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얽매이지 않고 지금 가능한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주로 구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수준에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실제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이제 이것은 가정합니다. 다시 우리는 바울이 처음 세 장에서 주장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모든 사람이 따랐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 주장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구출되어야 하거나 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해결책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는 이 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처음 세 장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만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고, 처음 세 장에서 죄 아래서 죄의 속박을 받은 것으로 묘사된 그의 백성을 위해 구속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제공합니다. 이 은유는 아마도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노예 제도나 시장 이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노예 제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육체적 주인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구원을 제공합니다.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구약성서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출애굽을 속박과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 또는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바울이 묘사하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가 처음 세 장에서 모든 사람이 아래에 있다고 묘사한 죄의 속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미지 또는 은유인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번역판을 열면 화목이 있습니까? 당신의 번역에 화해가 포함된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속죄의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역 모두 그리스어 단어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희생 사상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이 죄를 없애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2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의 희생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제거한다는 구약의 비유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25절을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속죄의 희생도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신학 담론에서 속죄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는 어떤 면에서는 지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화해의 개념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거나 실제로 피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돌아가면 18절이 뒷받침됩니다. 18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와 인류에 대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반응이라는 개념, 즉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속죄의 희생과 함께 화목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와 그분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인류에게서 그 진노를 막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해라고 번역된 경우 화해 뒤에 숨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돌이키게 한다는 점에서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의 희생이나 속죄의 희생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뒤에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에서 알렉산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어를 전파한 장군 알렉산더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헬라어 번역을 조만간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헬라어 번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흔히 70인역으로 불린다. 또는 70을 나타내는 로마 숫자 LXX.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실제로 바울이 여기에서 발견된 언약궤의 시은좌에 대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언약궤 위 시은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이미지와 약속과 모든 사건 등을 성취하신다고 말하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들 중 어떤 것도 배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영성한 생각을 하고 "글쎄, 결정할 수 없으니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개념은 확실히 구약성서와 심지어 더 넓은 그리스 세계에 적합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희생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는 동시에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킵니다.

그것은 그것을 회피하고 인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동시에 예수님은 이 속죄가 일어나는 곳인 속죄소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괜찮은.

그러나 흥미롭게도 복음서의 핵심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부분은 단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또는 공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그를 속죄제와 속죄제와 속죄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

그러나 이는 지금 자기가 의로우신 것과 자기가 의로우신 것을 입증하려 하심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이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인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의롭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이 예상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롭고 의로우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신약과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표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어느 누구도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시고 대신 믿음과 은혜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 사항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기준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표준과 기준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진노를 피하고 만족시키며 죄가 처리되는 속죄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공의에 실패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성품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시거나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희생으로 제공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표준을 충족시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마틴 루터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1장부터 3장).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시거나 기준을 바꾸시거나 더 쉽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롭고 의로운 성품에 따라 행동하기를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유지하시고 자신의 의로운 성품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여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속죄로서의 그분의 죽음, 구약의 희생 제도의 성취로서의 화해로서의 그분의 죽음. 좋은.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칭의에 관해, 즉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와 의,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점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좋은. 해당 섹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엔 그게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글썄, 우리는 의로움이나 칭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용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 영어로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것을 언급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를 보여주거나 내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에 걸쳐 칭의 또는 의라는 단어는 종종 법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과 같은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그린 주요 배경이 구약과 그리스-로마 세계의 법정인 법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류의 심판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시 인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겼고,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할 때, 칭의의 의미는 누군가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거나 누군가가 무죄하다고 선언하거나 옹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생각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죄를 지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다고 선언되거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무죄하다고 선언되거나 입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입증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역이며 나는 또한 그의 부활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칭의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무죄하다고 선언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주로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걸쳐 칭의와 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요약하자면, 로마서의 대부분의 중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희생에 근거하여 입증되고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죄, 속죄. 그리고 나머지 로마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설명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생각을 소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즉,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것들이 실제로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다른 곳에 나타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메모에 있는 또 다른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바울, 실제로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이지만 우리가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개념을 예수님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나는 당신이 내 수업 시간에 자고 있다면 신이 금하신 일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깨워서 당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말했지만 아직 말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맞을 확률은 약 90%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그것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는 이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실 때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국을 제시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이를 제의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함과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것과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 긴장감은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과 현재 현실이지만 아직 완성과 충만에 도달하지 못한 미래 사이의 긴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을 읽어 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긴장의 이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사실이 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때때로 바울은 다소 절대적인 진술을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것은 다소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뭐, 이미 긴장의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긴장의 아직 아닌 측면은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이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편으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완벽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구절 뒤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11절부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줄로 여기라.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그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줄 알았습니다. 왜 그분께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합니까? 이것은 긴장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오히려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완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죽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도래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으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바울의 서신 전체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나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다소 모순되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당신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의 일부이지만 아직 긴장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바울이 인간을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의 존재를 두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은 물리적 위치나 지리학적 위치, 지도상의 지점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은 단지 현실이나 영향권, 통제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Paul은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 작동하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는 긴장감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문학이 있거나 인류가 이 두 영역, 즉 영향력이나 통제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이 종종 옛 사람, 옛 자아,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한 영역이 일부 번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에 빠뜨린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이 이에 관해 논하는 로마서 5장을 읽어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인류에 속하며, 우리를 통제하는 영향력이나 권력의 영역인 존재의 일부입니다. 이 영역은 죄와 사망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도달할 때 이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여기에도 넣었지만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은 악하지도 않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해낸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옛 사람에게 대해 말할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옛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이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의 내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권세 안에 있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을 받았던 나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새 사람, 새 자아 또는 새 사람에게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영향력과 능력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이 두 가지 포괄적인 인문학을 이해합니다. 아담 아래의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권세와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의 영향권과 범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모든 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종류의 인문학 또는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바울이 절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 그러나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아직은 죽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은 완료 되지 않았거나 완전해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은 명령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새 사람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러한 특징이 지배적인 특징을 갖는 두 영역, 즉 영향력의 두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영역의 통제 안에 있거나 이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성령이 특징입니다.

이 긴장을 다시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의 긴장 사이입니다. 직설법은 다시 한번 이미에 해당합니다. 직설법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는 진술과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명령은 윤리적 금지명령과 명령이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되지 않은 것,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서도 명령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직설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술과 주장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반드시 연합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 옛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옛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절대적인 진술을 주목합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멸절되도록 옛 사람, 즉 옛 사람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 언어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사람이 아담의 지배권과 권세 안에서, 죄와 사망이 멸했다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없어졌으므로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이며 바울은 덧붙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이지만 Paul은 돌아서서 다시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을 한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직설적 명령과 이미/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사이의 긴장으로 돌아가므로 더 이상 바울은 명령이 아닌 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죄의 몸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된 형태로 궁극적이고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적인 측면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함으로써 참된 것을 행동하는 데 참여해야 하며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과 마태복음이 이미 왕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현실이지만 아직 그 충만함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옛 자아/새 자아와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질문이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초대교회 메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열린 교회 우편물의 또 다른 부분을 보고 싶고, 고린도 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나 적어도 첫 번째 편지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의 고대 유적의 그림일 뿐입니다. 비록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침내 그곳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의 배경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는 실제로 고린도 시에서 18개월, 즉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교회를 세우는 데 보냈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고린도를 떠난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이제 떠나자마자 그는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제 앉아서 고린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1세기 이 시기에 그리스 제국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위치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두 부분의 두 이름입니다. 구약성서 조사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사이에 나누어졌음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분열된 왕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그리스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케도니아이고 다른 하나는 아가야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왕국의 수도였으며 따라서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시 역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그리스-로마 문화의 최고와 최악을 대표하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부로 유명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고린도에는 엘리트 부유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고린도는 종종 일부 보고서에 알려졌습니다. 고대 보고서는 약간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성적 부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종종 다른 종교 및 제의적 관습, 예배, 우상 숭배, 이교도 사원에서의 예배 및 그와 유사한 것들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나는 당신이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살 곳을 찾고 있다면 고린도가 당신의 목록의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린트는 올림픽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이스트미아 게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고린도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요소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후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부터 편지 자체를 검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썄, 당신은 내가 신약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각각 다른 서신, 즉 별도의 서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고린도후서와 4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5:9 제가 방금 전에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으나 그가 아무 것도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이전에 썼던 편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따라서 기술적으로 그가 5장 1절에서 언급한 편지는 고린도전서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의 고린도후서, 그것은 또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다고 말한 편지인 엄중한 편지로 알려진 이전의

편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분명히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5장 9절에 언급된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이고,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읽는 엄중한 서신이고, 고린도후서는 실제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내 요점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단순히 바울과 고린도서 사이의 훨씬 더 광범위한 서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고린도인들이 이미 다루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역사와 문학, 15강, 로마서 및 고린도전서 서문입니다.